

탄 원 서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25고합60 특수건조물침입
- 피 고 인 : 정윤석
- 탄 원 인
성 명 : 이가혁

탄 원 취 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JTBC 보도국 밀착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2025년 1월 18일 오후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여러 폭력 사태를 주시하던 중, 1월 19일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폭동 가담자를 뒤따라가 법원 청사 내부 상황을 단독 촬영했습니다. 당시 폭동 가담자들이 특정 판사를 색출하려했던 일련의 행동, 법원 기물을 무자비하게 파손한 행동 등을 여러 건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보도 직후 “법원행정처 차원의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 전체를 제공했고, 서울경찰청·서울마포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은 재판장님이 맡고 계신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취재 과정과 보도 결과물은 그 정당성과 공익성,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5년 1월 이달의 기자상(한국기자협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방송기자연합회) 등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취재진에 대한 특수
건조물침입 혐의 피고발장이 접수되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
결한 바 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취재와 보도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하기 위한 취재와 보도였다는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JTBC 보도국 밀착부 취재진의 활동을 이렇게 길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
리기 위함입니다. 여러 언론보도나 예술 단체의 성명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듯이, 정윤석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 석
사학위를 취득했고, 그동안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에 영상
기록이 필요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국회 안팎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상
황을 기록해왔습니다. JTBC 보도국 탐사부가 제작하고 2024년 12월 14일
TV 방영한 <특집 다큐 '내란, 12일 간의 기록'> 에도 정윤석 감독의 촬영
영상이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다큐 방송 엔딩 자막에도 '화면 제공 정윤석'으
로 표기됐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새벽에도 '다큐멘터리 감독' 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
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윤석 감독의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 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 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을 처벌한다면, 영상 예술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술계를 넘어 언론계에도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귀 재판부께서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활용하고 계신 JTBC의 '법원 청사 내부 단독 촬영 영상' 같은 사
례가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장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온 한 예술가가, 뜻하지 않
게 범죄자로 단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
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5년 7월 14일

단원인

이가형

